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 과학기술처 -

지난 한해동안의 원자력 안전활동과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1997년 원자력안전백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처가 펴낸 이 백서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 건설중이거나 가동중인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방재대책, 원자력통제제도 운영 등 모두 7장으로 짜여졌다.

특히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6년도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핵연료주기시설 현황, 방사성동위원소 및 이용기관 증가 추이, 기체 방사성폐기물의 방출량 등 원자력 관련 주요 통계자료와 도표가 다양하게 수록돼 있다.

또 특징으로 '체르노빌 사고후 10년 : 사고의 종합적 영향', '원전 방사선의 환경영향 우려와 역학 조사의 문제',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 등이 실려있다.

과기처는 이 백서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원자력 산·학·연 관련기관 등 전국 1천6백여기관에 무료로 배포, 원자력 안전시책 및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조선일보 : '97/09/12〉

원자력벼 벼 신품종 개발

- 방사선 이용 성장빨리 수확단계 -

방사선을 이용해 일반 재래종에 비해 추수기가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벼 품종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신인철(申仁澈)박사팀은 화성벼 섬진벼 추청벼(아까바레) 등 재래종에 200~300그레이(Gy)의 감마선을 쬐어 돌연변이종(품종명 「원농」)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9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이 품종을 충남 홍성군 2곳, 당진군 1곳, 경기 남양주시 1곳 등 4,000여평의 농지에 재배한 결과 재래종에 비해 추수기간이 20일 정도 빠르고 수확량도 3,000평당 20kg정도 많은 결과를 얻었다.

이 품종은 쌀의 흰부분(복백)이 적어 밥맛이 좋고 병충해(문고병)에 강하며 벼의 키가 작아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다.

재래종은 수확량이 많고 쌀의 질도 좋지만 추수기가 늦은 게 단점이고, 조생종은 추수기는 빠르나 쌀의 질과 수확량에서는 재래종에 비해 떨어지는게 문제다.

〈경향신문 : '97/09/08〉

국내서도 실험동물 '특허' 심사

국내서도 생명공학 분야 특허심사기준이 마련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자 생명과학 분야의 살아있는 시약인 실험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질환동물에 대한 동물특허 시도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국내서도 가능해지기 때문. 우리나라도 2년전부터 서울대 서정선 교수의 [암자연발생 유전자 이식 마우스와 그 제조방법] [T세포가 결합된 유전자 이식 마우스] [당뇨병 발생 유전자이식 마우스] 등이 특허심사 청구대상에 올라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88년 암연구용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하버드 마우스]에 대해 세계 최초로 동물특허를 부여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최근 복제 양의 등장으로 동물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험동물은 철저한 유전자 보존으로 실험에 유익한 우량의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 [쥐호텔]까지 불리는 실험용 마우스 사육환경은 연중 실내 온도 섭씨 22도, 습도 55%, 소음 60데시벨 이하

신문 속의 RI단신

등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공기도 시간당 15~18회 정도 환기해줄 정도로 쾌적해야 한다. 공기도 바깥으로만 흘러나가도록 해 어떠한 병균의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먹이도 방사선 멸균이나 고온 살균 후 먹이며, 유전학적 관리를 위해 우수한 종자만 교배시킨다. 화재 등 천재지변에 따른 종자 손실에 대비, 섭씨 영하 1백 96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실험동물의 수정란을 동결보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마우스(3천3백여종), 래트(7백50여종), 토끼(70여종), 개(15여종) 등 수천 계통의 실험동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연간 시장규모는 수천만 마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이런 실험동물의 국제적인 품질검정 기관이 생명공학연구소 한곳 뿐이다. 생명공학연구소는 대한실험동물센터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40억원을 들여 충북 음성에 실험용 작은 쥐(마우스)와 큰쥐(래트) 등 60여만마리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 수요량 1백만마리에는 턱없이 모자라 연간 1백억원 이상씩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동물로서 가장 인기있는 마우스와 래트는 마리당 6천~8천원이지만 수입가는 2만~2만5천원에 이른다. 그나마 리우회담('92년)의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실험동물의 수입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원센터 현병화 박사는(현재 마우스와 래트 1백여종에 대해서만 유전자 보존과 품질검증을 하고 있다)며(앞으로 기니 피그, 토끼, 미니 돼지, 영장류, 개 등 중형 실험동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97/09/09)

중·소병원 10곳중 9곳 인력난 심각

중·소병원 10곳 중 9곳이 의사와 간호사 등 전

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병원 원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영상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낙관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9일 대한병원협회는 전국의 4백병상 이하 중·소병원 가운데 51개 병원장들을 상대로 전문인력 수급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원장들의 87.8%가 병원의 운영에 실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곳이 82%로 가장 많고 그다음 전공의(77.1%), 인턴(75.8%), 일반의(64%) 순이었으며 야간이나 휴일 당직의가 부족하다는 곳도 72.4%나 됐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전체 병원의 71.1%가, 간호조무사와 기타 간호보조인력은 68.3% 및 32.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물리치료사는 34.2%, 방사선기사는 29.3%, 임상병리사는 12.8% 의무기록사는 7.3%가 각각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영양사는 부족하다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서도 병원 운영에는 불필요하지만 의료법 등 관계규정상 어쩔수 없어 비전문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한 병원이 86%에 달했다.

중소병원들이 이처럼 인력난을 겪는 것은 대학부속병원 등 대형병원에 비해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데다 의사들의 경우 개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병원의 경영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36%가 비관적, 10%가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5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낙관한다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한국일보 : '97/09/08)